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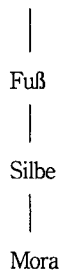
## 독일어에서 음운단어\*

유시택(충남대)

### 1. 서론

형태, 통사적인 범주에 속하는 형태소나 어근, 어간, 단어와 같은 단위만으로서 음운현상을 올바르게 기술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많은 형태적 규칙들이 어기의 일정한 형태를 요구하며,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기 형태가 흔히 형태소, 어근, 어간, 혹은 단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율형태론(McCarthy/Prince 1986)에서는 어근, 어간, 단어와 같은 형태, 통사적인 단위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단어 내부의 운율구조를 가정한다:

(1) Phonologisches Wort



이에 따르면 음운단어(=Phonologisches Wort 혹은 Prosodisches Wort, 이하에서는 이를 PW로 칭한다)는 1개 이상의 음보로 구성되며, 1개의 음보는 1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며, 1개의 음절은 1개 이상의 모라로 구성된다.

이 운율단위들 중에서 모라, 음절, 음보의 구조는 순수하게 어기의 음운정보에 의해 결정됨에 반해, 음운단어는 어기가 가지고 있는 비음운적인 정보 (즉

\* 이 논문은 2002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 독어학 제8집

형태, 통사, 의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음운단어라는 운율단위를 만드는 Mapping Rule(사상규칙)에 의해 도출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Nespor/Vogel 1986). 예를 들어 Wiese(1996: 67)는 독일어에서 음운단어를 도출하기 위한 Mapping Rule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2)에서 [ ]는 형태소 단위, ( )는 음운단어 (=ω)를, +는 형태소 경계를 표시한다):

- (2) a. ( )ω [ [+vokalisch]...] Suffix → ( [ [+vokalisch]...] Suffix)ω  
b. ( )ω [+t, +st, +n]Suffix → ( [+t, +st, +n]Suffix)ω  
c. Alle anderen morphologischen Kategorien (Stamm, Präfix, Suffix) bilden ihr eigenes Phonologisches Wort.

Mapping Rule (2a)와 (2b)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접미사 +t, +st, +n은 이들 접미사 앞의 음운단어에 포함됨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그밖의 다른 모든 형태범주들(어간, 접두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은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음운단어를 형성하게 된다(규칙 (2c)).

이와 같은 음운단어형성의 근거로서 Wiese는 음절화규칙과 병렬구조에서의 탈락현상(gapping, 이하에서는 편의상 탈락현상이라고 칭함)을 제시한다. 그러나 독일어의 여러 가지 다른 음운, 형태적 현상을 살펴보면 음운단어의 구조가 (2)와 같이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접두사들은 최소단어의 제약을 위반하는 점에서 주어휘부류인 명사, 형용사, 동사에 속하는 어휘소들과 구분되어야 하며, 이런 접두사들은 자기 자신의 음운단어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sup>1)</sup>

또한 *der*, *die* 등 기능어에 속하는 단어들의 모든 형태가 한 개의 음운단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모든 어간을 한 개의 음운단어로 취급하는 (2)의 Mapping 규칙은 수정되어야 한다.

---

1) Wiese의 음운단어 mapping rule에 의하면 접두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음운단어를 형성한다. 이 점에서 접두사+어간(*be+kommen*, *ent+laden*)은 합성어(*Großvater*)의 운율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합성어는 첫째요소, 즉 첫째 음운단어가 주강세를 지니는 반면 *be+*, *ge+*, *ent+*, *ver+* 등의 동사접두사는 주강세를 지닐수 없다. 따라서 동사접두사를 한개의 음운단어로 본다면, 운율상 합성어의 강세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 나는 독일어의 음절화, 탈락현상, 이형태소 규칙(Allomorphie-Regel)에서 나타나는 제약들을 통해 (2)의 Mapping 규칙이 부적합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은 독일어의 음운단어의 구조가 (2)처럼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Wiese가 제시한 음절화규칙과 탈락현상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두개의 현상에 대한 Wiese의 분석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독자적인 음운단어를 형성함에 반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음운단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음절화규칙과 탈락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순환적인 논리를 보이는 결함을 안고 있다. 즉 왜 *lieb+lich*에서는 음절경계가 *+lich* 앞에, *nebl+ig*에서는 /b/ 앞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lich*가 독자적인 음운단어임에 반해, *+ig*는 음운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왜 *+lich*가 독자적인 음운단어임에 반해, *+ig*는 음운단어가 아닌가라는 질문은 위의 *lieb+lich* vs. *nebl+ig*에서 보이는 음절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마찬가지로 탈락현상의 분석에서 왜 *mütter- und väterlich*에서 *+lich*의 생략이 가능함에 반해 *winz- oder riesig*에서 *+ig*의 생략은 불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전자가 음운단어임에 반해 후자는 음운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왜 *+lich*가 음운단어이고 *+ig*는 음운단어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위의 탈락현상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2장은 음절화규칙과 탈락현상이 음운단어가 아니라, 보다 기본적인 제약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임을 보임으로써 순환적인 논리의 결함을 제거하고 있다.

음절화규칙과 탈락현상이 음운단어를 언급할 필요없이 기본적인 제약들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음운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3장은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독자적인 음운단어를 형성하므로 부강세를 지님에 반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이에 반해 부강세를 가질수 없다는 일반적인 가설(vgl. Giegerich 1985, Hall 1999)에 반해 접미사의 부강세 여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형용사 최상급 *+st/+est*의 변이형태소 규칙을 통해 보여준다.

## 2. 음운단어를 규정하는 기준

기존의 분석들에서 음운단어를 규정한 기준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므로 독일어의 음운단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아직 통일된 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Wiese(1996)는 (2)의 규칙에 따라 음운단어가 도출됨을 두가지 음운현상, 즉 음절화 규칙과 탈락현상을 통해 설명한다.

Wiese(1996: 67)에 의하면 음운단어는 음절화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이므로, 음절화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먼저 음운단어가 정해져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음절화규칙이 형태소경계를 넘어 적용될 수 없는 모든 형태적 단위들이 1개의 음운단어가 된다. (3)에서 보듯이 합성어의 구성성분(d),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a), 접두사(c)가 이에 속한다 (예들에서 화살표는 형태적구조에서 음운단어의 구조가 도출됨을 의미).<sup>2)</sup>

- (3) a. Lieb+ling → (Lieb)ω (ling)ω
- b. nebl+ig → (neblig)ω
- c. ent+reißen → (ent)ω (reißen)ω
- d. blut+rot → (blut)ω (rot)ω

음절화규칙이 음운단어의 경계를 뛰어 넘어 적용될 수 없는 사실은 (3a)와 (3b)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음사이의 자음들은 음절머리자음최대화(Onset-Maximierung)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면 두 번째 모음과 동일한 음절을 이루려고 한다 (예: *Diplom* [di.plo:m], 이하의 발음기호들에서 점은 음절 경계를 표시). 자음군 /b/은 독일어에서 음절초 자음군(Onset-Cluster)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예: *blau*, *blind* etc.), (3a)에서는 /b/ 와 /l/이 음운단어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음절초 자음군이 될 수 없고 /b/가 말음경화됨에 반해([li:p.lɪŋ]), (3b)에서는 /b/ 와 /l/ 사이에 음운단어의 경계가 없으므로

---

2) Wiese는 접두사 중에서 *in+*은 예외적으로 음운단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보통 동화규칙이 음운단어의 경계를 넘어 적용될수 없는데, *in+*은 *illegal*, *irregulär*에 서처럼 음운단어의 경계를 넘어 다음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b/은 음절초 자음군이 된다. 따라서 이때 /b/는 말음경화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a)처럼 음운단어의 경계에 의해 음절경계가 결정된다고 볼 때 독일어의 말음경화현상은 대부분의 음운론자(vgl. Giegerich 1985, Hall 1992, Yu 1992, Wiese 1996, Féry 1998)들이 주장하듯이 순수하게 음운정보에만 의존한 규칙(음절꼬리 (Koda)의 유성저해음은 무성음으로 실현된다)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위의 (3a)와 (3b)의 /b/의 실현의 대조가 보여주듯이 음절내의 위치는 음운단어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규정은 음운적인 정보가 아니라, 형태-통사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태-통사적인 구조에서 직접 음운단어의 구조를 도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첫째로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PW라면 이 접미사는 일반적인 어휘단어가 보이는 강세 패턴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어휘단어가 주강세를 가질 수 있음에 반해 접미사는 주강세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PW로 취급되는 합성어의 구성성분과 달리 부강세를 지닐 수도 없다. 예를 들어 +*chen*과 같은 접미사는 음절핵이 Schwa 모음이고 Schwa 모음은 언제나 강세를 지닐 수 없으므로 +*chen* 을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의 PW로 본다면 강세에 관한 PW의 일반적인 속성에 모순될 것이다. 또한 +*chen*은 일반적인 어휘단어가 적어도 두개의 모라를 가져야 한다는 소위 최소단어조건도 지키지 않는다(이에 대해서는 3장 참조).

두 번째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일반적인 어휘단어의 속성과 부합되지 않는 점은 일부 접미사들이 보이는 하위범주정보이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접미사 +*heit*와 +*keit* 는 (4)에서처럼 어간의 음운정보에 따라 두 개의 접미사 중 어떤 것이 어간과 결합할지가 결정된다.

- (4) a. Frei+heit, Schön+heit, Privat+heit  
b. Ewig+keit, Höflich+keit, Ehrbar+keit

Wiese(1996: 98-99)에 의하면 여기서의 마지막 음보(Fuß)가 강약음절로 이루어져 있을때 +*keit*가 여기와 결합하며, 그 밖의 경우는 모두 +*heit*가 여기와 결합하므로 변이형태소 +*heit/keit*의 관계는 +*keit*의 하위범주정보(즉 어기가 강

## 6 독어학 제8집

약 2음절로 이루어진 음보로 마쳐야 한다)에 의해 결정된다.

이 분석이 옳다면 *Ewig+keit*는 (5)와 같은 도출과정을 통해 Mapping-Rule에 의해 두 개의 PW가 인접하는 보통의 합성어(예: *Hoch+haus* → (Hoch)⊙(haus)⊙)와 같은 운율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다.

- (5) *ewig, keit* : 기저형태  
*Ewig+keit* : 형태적규칙  
(*Ewig*)⊙ (*keit*)⊙ : Mapping Rule

그러나 *+heit/keit*가 일반적인 어휘단어와 마찬가지로 한개의 PW로 취급된다면 합성어에서 어휘단어가 다른 어휘단어와 결합할 때 이와 유사한 어기의 음운정보에 따른 하위범주가 가능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독일어 합성어에서 일반적으로 형태, 통사적인 정보에 의한 하위범주화는 존재하지만(예를 들어 합성명사의 경우는 명사+명사, 동사+명사, 형용사+명사의 경우만 가능하다) 합성어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한 개의 어휘단어의 음운정보에 의한 하위범주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heit*와 *+keit*가 모두 개별 PW라면 이들은 일반적인 어휘단어와 달리 음운정보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는 PW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접미사에 따로 PW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어간과 접미사를 합쳐 하나의 PW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Wiese의 접미사의 성격에 따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vs.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PW의 자격구분이 독일어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6) 독일어의 음운단어  
음운단어는 한 개의 어간과 뒤따르는 모든 접미사의 결합이다.

독일어의 음운단어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음절화에 관한 기본적인 제약들에 대해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지만 단어의 부강세와 관련해서도 두 종류의 접미사는 동일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Wiese에 의하면 음운단어가 필요한 이유가 음절화 때문이며, 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음절화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가는 이들이 각각 상이한 운율구조(즉 전자가 독자적인 음운단어임에 반해, 후자는 그렇지 않음)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3a)와 (3b)의 대조 (*lieb.lich* vs. *ne.blig*)에서 *-lich*는 독자적인 음운단어이므로 음절경계가 음운단어의 경계를 지나 *lie.blich*가 될 수 없음에 반해 *ne.blig*에서는 어간+접미사 전체가 하나의 음운단어이므로 /bl/이 둘 째 음절의 초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순환적인 논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Wiese에게 왜 음운단어의 존재가 필요한가라고 물으면 *lieb.lich* vs. *ne.blig*의 대조 때문이라고 말하고, 왜 *lieb.lich* vs. *ne.blig*의 음절화 차이가 존재하는가 라고 물으면 음운단어의 존재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순환적인 논리의 결함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제약에 기반 한 최적성이론(Optimalitätstheorie, Prince/Smolensky 1993, McCarthy/Prince 1993)의 관점에서 음절화규칙은 다음과 같은 어간과 음절(=σ)의 양쪽 경계가 일치해야 한다는 두 개의 Align-제약과 Onset 제약(=Ons)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7) a. Align-Left (Stamm: Left, σ: Left)  
 b. Align-Right (Stamm: Right, σ: Right)  
 c. Ons: 모든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해야한다.

이 제약들을 토대로 형태적으로 상이한 구조들(접두사+어간, 어간+어간, 어간+접미사)에서의 음절화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이하의 표에서 최적형태는 →로 표시되어 있음):

## (8) 형태적구조와 음절경계

	Align-L	Ons	Align-R
1. 접두사+어간 Ver+antwortung			
a. Ve.rant.wor.tung	*		
→ b. Ver.ant.wor.tung		*	
2. 어간+어간 Tag+arbeit			
a. Ta.gar.beit	*		*
→ b. Tag.ar.beit		*	
3. 어간+접미사 Lieb+ling			
a. lie.bling			*
→ b. lieb.ling			
4. 어간+접미사 kind+isch			
a. kind.isch		*	
→ b. kin.disch			*

4의 어간+접미사에서 어간의 오른쪽 끝과 음절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음절이 Ons 제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일한 형태적 구조인 3에서는 두 번째 음절이 이미 Ons 제약을 지키고 있으므로 어간의 오른쪽 끝과 음절경계가 일치해야 하는 제약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3과 4를 비교하면 Ons 제약이 Align-R보다 상위에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하나의 PW가 되고 PW는 음절경계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Lieb)@ (ling)@이 *Liebling*으로 음절화될 수 없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설명은 특정 형태소(즉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음운단어가 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므로, 음운현상에 근거한 규칙, 즉 언어보편적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Align-R 제약이 Ons 제약을 지키기 위해서만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Align-R 제약이 Ons 제약을 지키기 위해 위반될 때이라도 그것이



어간의 왼쪽 끝과 음절경계가 일치해야하는 Align-L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1과 2의 형태적 구조에서 후보 a는 각각 비록 Ons 제약을 지키나 어간의 왼쪽 끝과 음절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Align-L 제약은 Align-R 제약보다 음절화에 있어 보다 강한 경계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다음의 제약들간의 랭킹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 (9) Constraineranking

Align-Left &gt;&gt; Ons &gt;&gt; Align-Right

이런 설명이 임의의 형태적 단위를 음운단어로 가정하여 음절화를 설명하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한 개의 음운단어 내에서 어간의 오른쪽 경계와 음절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kind+isch*), 이것은 오직 두 번째 음절의 Ons 제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태적으로 단순한 보통의 2음절 어휘단어의 음절구조와 완전히 일치한다(*Vater, Segel, Kino* etc.).

이에 반해 Ons 제약을 지키기 위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이미 두 번째 음절에 Ons 자음이 있는 경우는 어간의 오른쪽 경계를 음절경계와 일치시켜야하는 제약을 위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täg+lich*에서 비록 *täglich*가 음절구조상 하자가 없을지라도(*gleich*에서 처럼 *gl-*로 시작하는 일음절 단어가 존재하므로), Ons 제약 충족의 필요가 없으므로 어간의 오른쪽 끝은 음절경계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Ons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나 어간의 끝 자음이 다음에 오는 모음과 함께 음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간의 왼쪽 경계는 음절화에 있어 일반적으로 오른쪽 경계보다 더 강한 벽이 되므로 어간과 어간사이의 재음절화는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어와 단어사이의 음절경계를 뛰어 넘어 첫음절의 마지막 자음이 다음 음절의 Onset이 될 수 없고(*ein Apfel* → *ein Apfel*, \**ei.napfel*), 합성어에서 어간과 어간 사이를 넘어 재음절화될 수 없는 이유(*Tag+arbeit* → *Tag.arbeit*, \**Tag.ar.beit*)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된 제약에 기초한 분석에 의하면 이런 사실은 어간의 왼쪽경계와 음절경계가 일치해야하는 제약이 Ons 제약 보다 상위에 있다는 (9)의 제약

랭킹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형태-통사적인 구조로부터 바로 음운단어의 구조를 도출하는 Wiese의 분석은 모음사이의 자음이 언제 Onset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순수히 특정 형태적 단위를 PW로 본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간의 왼쪽경계가 오른쪽 경계보다 음절화에서 보다 더 강한 장벽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sup>3)</sup>

음운단어의 구조를 (3)과 같이 보아야하는 두 번째 증거로서 Wiese(1996: 70-71)는 (10)에서 보이는 탈락현상(gapping phenomenon)을 제시한다.

- (10) a. Tiefebenen und Hochebenen → Tief- und Hochebenen  
 Ostersonntag und Ostermontag → Ostersonntag und -montag  
 b. mütterlich und väterlich → mütter- und väterlich  
 c. Überbau oder Unterbau → Über- oder Unterbau  
 d. winzig oder riesig → \*winz- oder riesig

(10)은 통사적으로 대등한 두 개의 구성성분이 *und* 혹은 *oder*로 연결된 병렬구조에서 한 개의 구성성분에서 음성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탈락됨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b)와 (10d)를 비교해 보면 탈락된 부분이 (3)의 음절화와 동일한 양상, 즉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자기 자신의 음운단어를 형성함에 반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Wiese는 탈락현상에서 탈락되는 단위를 음운단어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앞의 음절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운단어의 구조는 탈락현상에 의해, 탈락현상은 음운단어의 구조에 의해 정당화되는 논리적인 순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입력부와 출력부 사이

3) 규칙에 입각한 이론에서는 어간의 왼쪽 경계가 오른쪽 경계보다 음절화에 있어 보다 강한 장벽이 되고 있음을 흔히 다음과 같은 제약에 의해 표현한다(vgl. Rubach & Booij 1990): 운율구조 제약(Prosodification Constraint): 운율구조의 도출은 형태소 구성성분을 나타내는 왼쪽괄호에 의해 차단된다. 이 제약에 의해 예를 들어 접두사+어간으로 구성된 [ent[artet]]나 합성어 [[Tag] [arbeit]]에서 음절화는 어간의 왼쪽괄호를 넘어 [en.tar.tet]나 [ta.gar.beit]로 될 수 없다. 그러나 규칙이론의 단점은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규칙 외에도 제약을 설정해야 하므로 동일한 현상이 종종 규칙과 제약이라는 두 개의 수단을 통해 표현되는 잉여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의 도출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들 간에 순서가 있다고 보는 규칙이론 자체의 가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음운단어가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 음절화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약에 기반 한 출력부 위주의 최적성이론에서는 도출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따라서 규칙간의 순서도 없으므로), 음절화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음운단어를 도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출력부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탈락현상은 입력부에서 무엇이 탈락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력부(즉 탈락이 일어난 후의 형태)가 중요한 운율계약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위의 탈락현상은 출력부(=탈락되기 전의 형태)와 출력부(=탈락된 후의 형태)간의 음절구조가 일치할 때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1) a. Output: (Hilf) $\sigma_1$ (los) $\sigma_2$

Output: (Hilf) $\sigma_1$

예: *Hilf- und Hoffnungslos*

b. Output: (win) $\sigma_1$ (zig) $\sigma_2$

Output: (winz) $\sigma_1$

예: *\*winz- oder riesig*

(11a)에서 출력부와 출력부의 음절구조를 비교하면 첫째 음절(= $\sigma_1$ )의 음절구조가 일치함에 반해, (11b)에서는 둘째 음절의 첫자음(=Onset)이 첫째음절의 마지막 자음(=Koda)으로 되어 출력부와 출력부의 첫째 음절의 구조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분절음의 탈락이 음절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하며 (11a)의 탈락이 허용됨에 반해 (11b)의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음 두개의 제약들 중 IDENT-OO(Silbenstruktur)가 Max-IO보다 상위 제약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12) a. IDENT-OO(Silbenstruktur)

출력부와 출력부의 음절구조는 일치해야 한다.

b. Max-IO

입력부의 분절음이 탈락되어서는 안된다.

제약에 기반한 이런 설명은 위에서 제시한 Wiese의 분석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11b)에서 탈락이 불가능한 것은 접미사 +ig가 독자적인 음운단어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los는 독자적인 음운단어입에 반해)이 아니라, 음절구조의 변화(Onset에서 Koda로)가 분절음의 삭제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며, 이 사실은 단순히 두 종류의 접미사(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vs.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서로 다른 음운단어의 자격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 3. 단어강세

일반적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들을 한개의 PW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들과 달리 어느 정도의 강세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vgl. Giegerich 1985, Hall 1999). (+chen은 위에서 보았듯이 예외). (13)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순수 독일어 접미사를 모두 열거하고 있다.

(13) 자음으로 시작하는 순수 독일어 접미사

+bar, +chen, +haft, +heit/+keit, +lein, +lich, +ling, +los, +nis, +sal, +sam, +tum, +schaft,

만약 이들 접미사가 자기 자신의 PW를 형성한다면, (Fräu)ω(lein)ω에서처럼 어간과 접미사가 결합한 운율구조는 두개의 PW로서 합성어 (Spiel)ω(uhr)ω와 동일한 운율구조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단어강세는 동일한 규칙에 의해 지배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14)의 합성어의 강세규칙(vgl. Wiese 1996: 298)에 의하면 합성어 [A B]의 경우 주장세는 A에 그리고 부강세는 B에 주어진다. 따라서 합성어와 동일한 운율구조를 보이는(Fräu)ω(lein)ω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lein도 부강세를 가질 것이다.

(14) 합성어 강세규칙

[A B]C 구조의 합성어 C(=Compound)에서 B가 합성어일 경우에만 B에 주장세가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A에 주장세가 있다.

그러나 (Fräu)w(lein)w과 같은 비합성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들이 부강세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Wiese(1996)와 Féry(1995)가 독일어의 단어강세를 설명함에 있어 부강세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반해, Hall(1999)은 독일어에 나타나는 일부 접미사들의 이형태소들이 단어의 부강세에 민감한 사실을 근거로 단어의 부강세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13)의 접미사들을 독자적인 음운단어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이 두개의 입장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강약 2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는 두개의 타입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되어 왔다(vgl. Giegerich 1985): (15a)처럼 약음절이 전혀 강세를 갖지 않는 경우와 (15b)처럼 약음절이 부강세를 갖는 경우(이하에서 주장세는 '로 부강세는 '로 표시됨). 형태적으로 복잡한 단어들도 이와 같은 대조를 보인다. 부강세가 있는 (15c)와 부강세가 없는 (15d)를 비교하라.

- (15) a. Héring, König  
 b. Árbèit, Démùt  
 c. sícht+bàr, gláub+hàft, Néu+hèit  
 d. kínd+lich, kínd+isch

그러나 Wiese(1996: 275)는 독일어 모국어 화자가 *sícht-bàr*와 *sícht-lich*간의 강세차이에 대한 아무런 직관이 없을 뿐 아니라 *únstatt+hàft*와 *únüblich*의 강세 패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장세 이후 오는 음절의 부강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Hall(1999)은 비합성어에서 부강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이형태소에 관한 두 개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되듯이 Hall이 제시한 이 규칙들은 실제로는 독일어 음보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제약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독일어 단어의 부강세를 인정해야 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부강세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서 Hall은 독일어의 형용사 최상급 형태소 +*est*/+*st*가 보이는 이형태소 규칙(Allomorphie-Regel)을 들고 있다. 이 두 개

의 이형태소의 분포를 살펴보면 형용사 어간말음의 성격과 어기의 강세라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어간말음의 성격에 따라 +est는 어간말음이 치경저해음(Koronal Obstruent)인 경우에 나타나고(예: *ält+est, wild+est, kaus+est, hübsch+est*) 그 밖의 경우(예: *lieb+st, schnell+st, froh+st, klein+st, schräg+st*)에는 +st가 나타난다. 어간말음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기의 강세가 두 형태소의 분포를 결정한다. (16a)에서 보듯이 형태소 +est는 어기의 마지막 음절이 주강세를 가질 때 나타나고, 어기의 마지막 음절이 강세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st가 나타난다. 강세가 없는 음절의 경우 모음은 Schwa이거나 (16b) 완전모음(Vollvokal)(예: (16c)의 [ε, ɪ])일 수 있다.

- (16) a. *berühmt+est+e*  
       *charmant+est+e*  
       *muskulös+est+e*  
       b. *gebildet+st+e*  
           *passend+st+e*  
           *schwerwiegend+st+e*  
       c. *elend+st+e*  
           *elastisch+st+e*

중요한 것은 이형태소 +est는 위에서처럼 어기의 마지막 음절이 주강세를 지닐 때 뿐만 아니라 부강세를 지닐 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접두사+어간과 합성어에서 각각 주강세는 접두사와 합성어의 첫째 구성성분에 있으며, 부강세는 어간과 합성어의 둘째 구성성분에 있다. (17)은 이 경우에도 +est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 (17) a. *un+geschickt+est+e*  
       *un+keusch+est+e*  
       *miss+gelaunt+est+e*  
       b. *sehens+wert+est+e*  
           *hoch+qualifiziert+est+e*

(17)의 예들을 통해 Hall은 +est가 어간과 결합하기 위한 운율조건이 주강세 뿐 아니라 부강세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18)의 파생어들에서 보이는 이형태소 분포는 접미사 +haft나 +los가 부강세를 지님에 반해, +lich, +isch, +ig 등은 부강세를 지니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 (18) a. gewissenhaft+est+e  
 tugendhaft+est+e  
 b. schamlos+est+e  
 hoffnungslos+est+e  
 c. modisch+st+e  
 logisch+st+e  
 d. freundlich+st+e  
 mächtig+st+e

Hall의 주장은 독일어 단어에서 부강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Wiese의 견해에 직접 배치될 뿐 아니라, 그의 주장이 옳다면 독일어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를 한 개의 독립적인 음운단어로 보아야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간+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18a와 18b)의 운율구조나 합성어의 운율구조(17b)가 동일하고(즉 두개의 음운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음운단어가 부강세를 가지는 점에서) +est 형태소가 결합할수 있는 조건에 대해 동일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Hall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18d)에서 보는 것처럼 접미사 +lich는 부강세를 갖지 않으므로 1장에서 소개된 Wiese의 음운단어의 정의 “모든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한 개의 음운단어이다”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st/+st 이형태소 분포를 결정짓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어의 음보구조를 결정짓는 제약들에 있으며, Hall의 주장처럼 어기 말 음절의 부강세의 존재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어의 음보는 강약의 2개 음절로 이루어진 음보를 선호하며, 한 개의 음보는 2개의 모라를 가지거나(예: 일음절 단어 *Hand*) 2개의 음절(예: *Vater*)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음 2개의 제약이 독일어 음보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필요

하다 (vgl. Féry 1995):

(19) Fuß-Form: Silbischer Trochäus  
한 개의 음보는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다.

(20) Foot-Binarity: 음보는 두 개의 모라 혹은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다.

Yu(2003)는 독일어에서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형태가(예: \*kanu-en, \*gummi-en, \*drama-en etc.) 독일어의 음보가 강약약 3음절로 구성된 Daktylus-Fuß를 회피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환 뿐 아니라 독일어 형태론을 지배하는 중요한 운율제약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음보형태에 관한 제약들 외에도 No-Lapse 제약이 독일어의 파생어와 전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21) No-Lapse: 두 개의 강세 없는 음절의 연속은 허락되지 않는다.

위의 데이터들에서 본 +est/+st 이형태소 분포는 Anti-Daktylus 현상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접미사 +st가 나타나는 형태들(16b, 16c, 18c, 18d)을 보자. 이 형태들에서 +est가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그럴 경우 모두 Daktylus-Fuß가 되어 No-Lapse를 위반하기 때문이다(22a를 보라). (22)에서 [ ]는 음보를 나타내며 \*는 해당 제약의 위반을 √는 충족을 의미한다.

---

4) No-Lapse 제약은 일부 굴절형태들을 설명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 여성명사 복수형태에서 복수접미사 +en/+n의 이형태소 분포는 No-Lapse 제약의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die) Blume (Sg.) - (die) Blume+n (Pl.), \*Blume+en, (die) Nummer (Sg.) - (die) Nummer+n (Pl.), \*Nummer+en vs. (die) Figur(Sg.) - (die) Figur+en, \*Figurn. 그러나 굴절형태들이 반드시 No-Lapse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chön+er+es에서처럼 No-Lapse의 위반이 가능하며, 이것은 굴절형태소를 실현시켜야하는 제약(=Realisierere Morphem)이 No-Lapse보다 상위의 제약인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	Fuß-Form	No-Lapse
a. *ge[bildet]+est	✓	*
*[érend]+est	✓	*
*[modisch]+est	✓	*
*opti[mistisch]+est	✓	*
b. *be[rühmt+st]	*	✓
*[un+ge][schickt+st]	*	✓
*[sehens]+[wert+st]	*	✓
*ge[wissen]+[haft+st]	*	✓

(22b)의 형태들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한 개의 음운단어는 강음절과 약음절로 이루어진 음보형태의 반복을 선호한다는 규칙성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be[rühmt+st]에서 음보는 비록 No-Lapse를 지키나 어간인 강음절 다음에 약음절 +est가 오지 않기 때문에 Fuß-Form을 위반한다. 이에 반해 올바른 형태인 be[rühmt+est]나 ge[bildet+st]는 두 개의 제약을 모두 지킨다.

마찬가지로 접두사+어간, 합성어 혹은 어간+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의 경우에서도 이형태소 +st를 취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Fuß-Form 제약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어간+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의 경우이다. Hall은 접미사 +haft와 +los가 부강세를 가지기 때문에 이형태소 +est를 취함에 반해, 접미사 +lich는 부강세가 없기 때문에 +st를 취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est를 취하기 위해선 어기의 말음이 치경저해음이어야 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접미사 +lich의 말음인 [ç]는 경구개음(Palatal)이므로 사실상 +lich의 부강세 유무와 상관없이 +lich로 끝나는 어기는 최상급에서 +st를 취해야만 한다(예: freundlich+st).

결국 Hall의 분석에 의하면 접미사 +haft, +los가 부강세를 가져야한다는 사실은 +est가 어기와 결합하기 위한 두 개의 조건(즉 (i) 어기의 말음이 치경저해음으로 끝나고 (ii) 어기의 마지막 음절이 부강세를 가져야 한다)에 의해 뒷받침되나, 접미사 +lich가 부강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i)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접미사 +lich로 끝나는 어기는 어차피 +st를 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강세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Hall은 일부 방언에서 [ç]가 [ʃ]로 발음되는 예

를 들어(23을 보라), *+lich* 접미사가 부강세를 갖지 않는다는 자신의 논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23) *freundli[ʃ]+st, mächtli[ʃ]+st*

[ʃ]는 치경저해음이므로 (i)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따라서 (23)이 *tugend+haft+est* 와 다른 점은 오직 *+haft*와 *+lich*의 부강세 차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한 분석에 따르면 *+lich* 접미사로 끝나는 어기가 *+st*를 취하는 이유가 일차적으로 어기의 말음이 치경저해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또 접미사 *+lich*가 *+haft*에 반해 부강세를 가지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왜냐하면 *\*freundlich+est*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위에서 (22a)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단어가 강약약의 3음절로 이루어져 No-Lapse를 어기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것은 어간말음의 분절음적 성질(치경음 vs. 경구개음)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들이 Hall의 주장과 반대로 부강세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왜 *+haft*와 *+los* 접미사 다음에는 이형태소 *+est*가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편의상 위의 (18)의 예들을 다음에 반복 제시하겠다:

- (18) a. *gewissenhaft+est+e*  
           *tugendhaft+est+e*  
       b. *schamlos+est+e*  
           *hoffnungslos+est+e*

(22b)의 *\*ge[wissen]+[haft+st]*에서 보았듯이 이 형태는 두 번째 음보가 1음절이므로 Fuß-Form을 위반한다. 그러나 *+haft* 접미사의 어기가 1음절인 경우(예: *bild+haft, glück+haft*)인 경우는 *freundlichst*에서처럼 이형태소 *+st*가 기대된다. 왜냐하면 (24)에서 보듯이 이 형태들은 음보의 구조에 관한 두개의 제약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24)		Fuß-Form	No-Lapse
	[freundlichst]	✓	✓
	*[bildhaftst]	✓	✓
	*[glücklichst]	✓	✓

비문법적인 형태인 \*[bildhaftst]와 \*[glücklichst]가 문법적인 형태인 [freundlichst]와 음보구조상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전자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음보구조에 관한 제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 차이는 독일어에서 일반적으로 치경음인 어간말음과 치경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t, -st)의 연결을 허락하지 않는 음소분포의 규칙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 동사 현재시제, 단수의 2인칭, 3인칭 형태에서 치경음의 연속은 허락되지 않음을 (25)에서 볼 수 있다(자세한 것은 Yu 2001를 참조하라).

- (25) a. (du) red+est (\*red+st)  
 (er/sie) red+et (\*red+t)
- b. (du) streich+st (\*streich+est)  
 (er/sie) streich+t (\*streich+et)

(25b)가 보여주듯이 어간말음인 경구개음 [ç]는 접미사의 첫자음인 치경음과 조음장소가 다르므로 음소분포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이것은 위의 *freundlichst*가 음소분포의 제약과 관계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제약 (26)은 동일한 두개의 자질의 연속(여기서는 치경음+치경음, 즉 [Koronal]이라는 조음장소자질)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27)에서 보듯이 이 제약이 No-Lapse 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접미사 *+haft* 혹은 *+los*로 마친 어기는 최상급어미 *+est*를 취하게 된다.

- (26) OCP(Obligatory Contour Principle=동일자질회피 원칙)  
 동일한 두 개의 자질 [F]의 연속은 허락되지 않는다.

(27)		OCP	>> No-Lapse
a.	[bildhaft+st]	*	✓
	→ [bildhaf]t+est	✓	*
b.	[schamlos+st]	*	✓
	→ [schamlo]s+est	✓	*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all은 형용사 최상급의 이형태소 +est/+st의 분포가 어기말 음절의 부강세에 민감한 것으로 보아 접미사 +haft와 +los는 부강세를 가짐에 반해 접미사 +lich는 부강세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접미사 +lich는 최상급 접미사 +est와 결합하기 위한 두 개의 조건 중 단어 강세와 무관한 조건(즉, 두 개의 치경음이 연속될 때)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st를 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lich에 부강세가 없다는 주장은 이론의 전제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이 논문에서 나는 이형태소 +est/+st의 분포가 Daktylus 음보를 피하기 위한 No-Lapse 제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올바른 음보구조를 판단함에 있어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들의 부강세 유무는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 분석이 옳다면, 2장에서 분석한 음절화와 탈락현상과 함께 이형태소 +est/+st의 분포는 독일어에서 어간+접미사를 접미사의 분절음적 성격에 관계없이 한 개의 음운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 4. 결론

기존의 연구들은 독일어의 어간+접미사가 두 개의 운율구조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어간+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두 개의 음운단어를 가지며, 어간+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는 한 개의 음운단어를 가진다.

이 논문은 이런 구분의 근거로서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음절화, 탈락현상, 형용사 최상급 접미사 +est/+st의 이형태소 규칙이 실지로는 음운단어의 구조

를 정당화할수 없거나(즉 음절화, 탈락현상의 경우에서처럼 해당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부터 특정 형태소들을 음운단어로 가정함으로써 순환적인 논리에 빠지거나), 음운현상의 본질적인 제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형용사 최상급 접미사 +est/+st의 이형태소 규칙의 경우)을 보이고 있다.

제약에 기반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간의 운율적인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음절과 음보에 관한 제약들간의 상호작용은 어간+접미사를 (접미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한 개의 음운단어로 취급하는 것이 옳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Féry, C. (1995) Alignment, syllable and metrical structure in German. SfS-Report-02-95. Tübingen.
- Féry, C. (1998), "On the best optimality-theoretic account of German Final Devoicing", Ms.
- Giegerich, H. J.(1985), Metrical Phonology and Phonological Structure : German and English. Cambridge.
- Hall, T. A.(1992a), Syllable Structure and Syllable-related Processes in German. Tübingen.
- Hall, T.A. (1999) "A Note on Secondary Stress in German Prosodic Morphology", in: Linguistische Berichte 178: 414-424.
- McCarthy, J./A. Prince(1986), Prosodic morphology.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Brandeis University. Rutgers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RuCCs) technical report 32.
- McCarthy, J. J./A. S. Prince(1993), Prosodic Morphology: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University fo Massachusetts, Amherst, and Rutgers Univerity, New Brundwick, N.J.
- Nespor, M/Vogel, I. (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 Prince, A./P. Smolensky(1993), Optimality Theory :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and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Rubach, J. & G. Booij (1990) Edge of Constituent Effects in Polish. In:

-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8: 427-463.
- Wiese, R. (1996) *The Phonology of German*. Oxford: Clarendon.
- Yu, Si-Taek (1992) *Unterspezifikation in der Phonologie des Deutschen*. Tübingen.(= Linguistische Arbeiten 274)
- Yu, Si-Taek (2001) "Multi-Strata Lexikon vs. Constrainingranking: Degemination im Deutschen", *Linguistische Berichte* 186: 129-155.
- Yu, Si-Taek (2003) "Eine optimalitätstheoretische Analyse der Konverion in Verb", in: *독일언어문학* 21: 1-22.

## Zusammenfassung

### Phonologisches Wort im Deutschen

Yu, Si-Taek(Chungnam National Univ.)

Im Deutschen wird generell einem Suffix zwei verschiedene prosodische Strukturen zugewiesen: ein konsonanteninitiales Suffix bildet sein eigenes phonologisches Wort, ein vokalinitiales Suffix dagegen nicht.

Für diese Unterscheidung zwischen zwei Suffixklassen nennt man innerhalb einer regelbasierten Theorie zwei Kriterien: (i) Phonologisches Wort fungiert als Domäne für die Silbifizierung und die Koordinationsreduktion, (ii) Konsonanteninitiale Suffixe tragen einen Nebenakzent, während einem vokalinitialen Suffix kein Akzent zugewiesen wird.

Diese Arbeit zeigt, dass das erste Kriterium kein Argument für die Annahme eines phonologischen Wortes ist. Die Existenz eines phonologischen Wortes und die Unterscheidung zwischen zwei Suffixklassen hinsichtlich des prosodischen Status werden durch einen Zirkelschluss begründet, indem die Annahme eines phonologischen Wortes Phänomene wie Silbifizierung und Koordinationsreduktion rechtfertigt, diese Phänomene wiederum ihrerseits die Annahme eines phonologischen Wortes.

Die hier vorgeschlagene Constraintsinteraktion erfasst dagegen den wesentlichen Charakter der beiden Phänomene, ohne dabei einen direkten Bezug auf das phonologische Wort zu nehmen.

Auch im Zusammenhang mit dem zweiten Kriterium stellt sich heraus, dass es

keinen Grund gibt, Akzentunterschiede bei Suffixen anzunehmen. Die Allomorphie der Superlativ-Suffixe +est/+st ergibt sich aus dem Constraintranking OCP >> fußbezogene Constraints, nicht aus dem Akzentunterschied zwischen Suffixen.

[검색어] 음운단어, 부강세, 음절화, 병렬구조에서의 탈락  
Phonologisches Wort, Nebenakzent, Silbifizierung, Koordinationsreduktion

유시택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sitaekyu@cnu.ac.kr